금주의 법구-〈잡보장경〉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 말고
무엇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해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7월 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2호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잊혀질 위기 놓인 불교 무형문화유산 종단서 보존 나선다

조계종, 다비 · 가사 등 무형유산 지정 추진

다비 · 가사 · 사찰 단오 행사 등 보존 가치가 높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조계종 종단 차원서 보존에 나선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는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무형분과 회의를 열고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단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보보존위원들은 그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한 종목 기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정 가치를 논의했다.

보고된 종목은 △불복장 작법 △다비 △통도사 단오용왕재 △해인사 단옷날 소금 묻기 △불교지화 △가사 등 6개로 성보보존위원들은 전부 "종단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불복장 작법은 1,000여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현재의 전승자들은 〈조상경〉에 정리된 화악지탁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불복장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등재도 임박해 있다.

불교 특유 전통 장례의식인 다비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승가에서마저 화장장 이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다비 의례 전승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보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도사 단오용왕재는 민간에서 전승 맥락이 사라져가는 소금단지와 용왕제를 수백 년간 전승해오고 있다는 점이, 해인사 단옷날 소금단지 묻기는 여타의 불교 의례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의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불교지화는 불교의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가치가 있음을 인정 받았다. 가사는 불교와 수행을 상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가사원의 설립으로 종도들이 가사에 다가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들이 사라져 '가사 짓기'라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가사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바른 의제법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찰과 단체가 보유한 불교 무형문화유산을 종단 차원서 지정해 보존에 나서는 것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2013년 12월 제정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에 따른 것으로 "총무원장은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종단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6조)"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문화부는 지속적으로 종목 추천을 받거나 자체 발굴에 나섰다. 전국 사찰에 대한 조사들도 이뤄졌다. 이를 거쳐 6개 종목에 대한 기초조사가 진행됐고, 종단 지정이 논의된 것이다.

성보보존위 회의서 논의
6개 종목 종단 차원 지정
국가 지정 문화재 추진도

"사찰은 세시풍속의 寶庫
무형유산 발굴 노력 필요"

향후 성보보존위원회는 절차를 거쳐 기존 국가 무형문화재인 연등회와 동해 삼화사 수륙재를 포함해 8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종단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다비 등 보존 가치가 높은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국가 문화재 지정도 추진한다.

이용윤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은 "사찰에 대대로 전승되는 풍습과 문화들은 자체가 무형 유산이 될 수 있다"면서 "종단 지정 후에도 보존 가치가 높은 무형 유산의 경우 국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찰 자체가 전승 문화를 무형 유산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 많아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은 과제"라면서 "일선 사찰에서 자체 풍습 등을 잘 살펴서 종단과 함께 보존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8월 21일 원적한 한마음선원 주지 연자당 혜원 스님의 영결식이 8월 2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엄수됐다. 사진은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암도 스님 법문 모습. 사진=노덕현 기자

"깊고 깊은 한마음, 빛으로 함께 하소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8월 21일 입적… 23일 영결식

원로 · 중진 스님 등 3000여 명 참석 '애도 물결'

"열심히 하십시오. 안녕"… 생전 영상에 눈물 바다

대행 선사의 원력을 이어 한마음선원의 기틀을 닦은 한마음선원 주지 연자당 혜원 스님이 8월 21일 오후 4시 58분에 입적했다. 법랍 37세, 세수 80세.

분향소는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 마련됐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BTN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등 종단 원로 · 중진 스님들의 추모 물결이 이뤄졌다. 영결식은 8월 2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엄수됐다. 전국서 모인 3000여 사부대중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혜원 스님의 생전 덕화를 기리며 고인의 입적을 추도했다.

이날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암도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혜원 스님을 추모했다. 이어 스님은 "큰 지혜는 화합이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하는데 한마음선원이 이와 같다"면서 "여러분은 대행 스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한 혜원 스님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 적당히 살지 않고 훌륭한 족적을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살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일생을 바쁘게 살아왔으나 마음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으셨으니 현시대 불자들이 그 가르침을 표상으로 삼는다"며 "이제 아무런 걱정과 시름도 없는 한마음 상적광토로 가셨사오니, 적멸의 기쁨 누리다가 오래 머물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음 주인공이 됐는지 경책해주시길 바란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혜원 스님의 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곳곳에서 대중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특히 영상 말미 "오직 근본자리를 믿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혜원 스님의 당부와 인사에 많은 불자들은 눈물을 훔쳤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은 부회장 일연 스님이 대독한 영결사를 통해 "스님 법체는 계시지 않지만 스님이 수호해오신 장엄한 도량은 수많은 공부인들을 배출해내는 정사가 돼 청정함이 바다를 이루고, 원력은 후세에 빛나 미래 공부인들에게 영원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속환사바 하시어 한줄기 빛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안팎의 대표자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졌다. 생전 혜원 스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조사에서 "혜원 스님은 위로는 은사 대행 스님의 날카로운 채찍을 받으며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아래로는 사제들을 보살피며 한마음선원 기초를 튼튼히 다져오셨다"면서 "붙잡을 수도, 오열한다고 돌아오실 수도 없다. 바라옵건대 새 옷 갈아입으시고 속히 오셔서 못 다한 불사 원만히 이루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정연만 부회장이 대독한 조사에서 "불자들을 위해 베푸실 일이 많은데 홀연히 떠나시니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진다"며 "스님의 원적을 가슴 깊이 애도하며 한없는 그리움으로 스님의 공덕을 다함께 기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필운 안양 시장은 "스님은 한국불교의 기둥이자 안양시의 등불이셨다. 사바중생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지역사회를 환하게 비춰주셨던 발자취는 안양시민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또한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은 조사를 통해 "스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마음을 쓰고 다듬어, 내가 변하고 가족이 행복해지며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마음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내빈을 비롯한 대중은 혜원 스님 영전에 헌화하며 마지막 예를 올렸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암도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부주지 원행 스님, 어산어장 인묵 스님,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일연 스님,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혜원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운문사 학장 일진 스님,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묘순 스님, 보탑사 회주 지광 스님 등 스님들과 이필운 안양 시장, 김대영 안양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육화문중대표 정원 스님은 "혜원 스님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없는 이 도량에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원 스님, 신도님들과 함께 도량을 잘 보듬어 가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혜원 스님의 법구는 서울추모공원으로 이운됐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별도의 다비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연자당 혜원 스님의 초재는 8월 27일 오전 11시 안양 본원서 열렸으며 △2재는 9월 3일 오후 2시 △3재는 9월 10일 오전 11시 △4재는 9월 17일 오후 2시 △5재는 9월 24일 오전 11시 △6재는 10월 1일 오후 2시이다. 49재는 10월 8일 오전 11시에 봉행된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연자당 혜원 스님
추모 특집 B1~4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6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7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유교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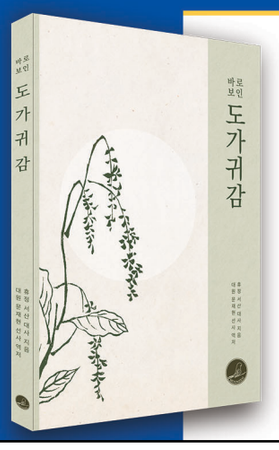
유가귀감은 서산대사가 간추려놓은 구절로서 간결하지만 심오하기 그지없다. 간략한 구절 속에서 유교 사상을 미루어 볼 수 있게 한 서산대사의 박학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바로보인 도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도교의 뜻

도가귀감은, 일물(一物, 온통인 마음)을 밝혀 회복함으로써, 나고 죽음을 비롯하여 모든 아픔과 고를 여의어, 뜻과 같이 누려서 살게 하고자 한 도교의 뜻을,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책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부록으로 도덕경의 중대한 대목을 더하고, 도가귀감과 도덕경의 대목대목마다 결문(決文)하여, 깊은 내용을 쉽게 수용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